

1920~1930년대 서울지역 전통주거의 근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박길룡의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住宅改良論'을 토대로 -

A Study on the Modernity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1920s~1930s

- Based on 'Housing Improvement Theory' on 'the Housing Plan of the Middle Area of Choseon' by Park, Kil-Ryong -

박형진* / Park, Hyung-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nity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ousing in Seoul 1920s to 1930s setting the criterion for analyses based on a Korean architect, Park, Kil-Ryong 'Housing improvement theory' about 'the Housing Plan of the Middle Area in Choseon'.

The architect Park, Kil-Ryong expressed 'Housing Improvement Theory' positively founded on having a deep knowledg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t his early working stage in 1928, he announced 'Housing Improvement Theory' about 'the Housing Plan of the Middle Area in Choseon' from the paper titled 'An Inquiry into the Housing of the Middle Area in Choseon'. It is inferred that his paper quite affected the modern changes of traditional housing of those day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even though the main floored room still keeps the symbolical and central position in traditional housing, the size of that is designed to be smaller than before. The room on the opposite side is generally designed widely as the scope more than 2 'KAN' and shows the features of expansion and division according to functions. By interchanging the location of the kitchen, the inner room as the main living space souths in the front of the house. The kitchen is designed as fitting size and separated from the space of working, linking, setting the table, keeping things and others. The bathroom is built in the house and then connected to the corridor. Each space is effectively planned for the best location in the house as considering lightening and ventilation.

키워드 : 전통주거, 근대적 특성, 박길룡, 중부지방가구법, 주택개량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항 이후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개화기는 비록 타율적이기는 하지만 이질적인 서양건축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전통 목조건축이 근대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함으로써 한국 근대건축사의 기점이 된다.¹⁾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주거건축의 근대화는 서구화, 합리화의 관점에서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전통주거에서 볼 수 없었던 현관,接客용 마루, 식당, 복도 등의 외래 공간 요소가 채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1910년을 전후하여 한(韓)·일(日)·양(洋) 양식의 절충식 주택이 등장하게 된다.

191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접한 소위 '신지식인'들은 전통적 유구에서 벗어나 서구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²⁾ 1919년 이후 경성공업전문학교에서 근대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가가 등장하는데, 1920년대 후반 이후 주택의 외형이나 배치, 평면 등의 구조적, 공간적 개선안을 제안하게 된다.³⁾ 이들은 주거문화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건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시 주거문화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의 대표적인 한국인 건축가 박길룡은 외래 주거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생활형식이 기형이며 병적이라고 하였다. 즉, 당시의 주거가 외래의 주거형식과 전통적인 생활방식의 차이에

1)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기문당, 1994, p.27.

2)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pp.119-164.

3)김명선·심우갑, 1920년대 초 『개벽』誌에 등장하는 주택개량론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0호(통권168호), 2002.10, p.122.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과정

서 오는 괴리로 인해 상당히 부조화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주택개량론'에 의해 개선된 주거는 실제 생활과 많은 차이가 있었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1930년대에는 재래식 한옥의 절대 우세라는 대국으로 기울어진다.⁴⁾

이 시기는 해방이라는 근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으로부터 태동된 주거 근대화과정의 분기점이 된다. 또한 '주택개량론'에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외래주거문화를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주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전통주거의 근대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해방 이후의 주거사 연구에도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20~1930년대의 전통주거의 근대적 특성을 박길룡의 '주택개량론'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여 밝히고 해방 이후 전개되는 주거근대화 과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20~1930년대 서울지역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근대적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범위는 우선 이 시기에 주거근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당시에 근대적 건축교육을 받고 등장한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해 개진된 '주택개량론'에 대한 문헌고찰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건축가 박길룡이 1928년 '(朝鮮文)朝鮮'을 통해 발표한 '中部朝鮮地方住家에 대한 一考察'을 주목하게 된다. 박길룡은 이 글에서 경성지방의 주택의 평면형식을 자세히 고찰하고 개량안을 제안한다. '주택개량론'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이 글에는 재래주택을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고 비판했으며, 어떤 점을 개선하고자 했는지 나타나 있다.

이 글은 당시 전통주거의 근대적 변천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인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실제적인 주택의 건립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전통주거의 근대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길룡의 '中部朝鮮地方住家에 대한 一考察'에 나타난 경성지방의 주택에 대한 비판과 개량안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의 주거근대화를 바라보는 분석틀을 설정하게 된다.<표 1>

사례 선정은 서울지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26채의 문화재 중에서 한국인 건축가가 활동한 시기에 건립된 6채를 대상으로 하였다.⁵⁾ 실제 조사 및 분석은 전통주거 안채

의 평면유형을 유지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3채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가옥에 대한 연구방법은 문헌적 접근을 통한 평면 분석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정된 분석틀에 의해 안채를 중심으로 대청, 건넌방, 안방, 주방, 화장실을 위생적 측면과 합리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2. 1920~1930년대의 주거근대화

2.1. 사회적 배경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1920년대 이후의 일제의 통치정책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었다. 문화정치의 영향으로 소위 문화운동자들이 주장한 '신문화건설' '문화향상'은 수양, 신교육보급, 풍속개량, 농촌개량으로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⁶⁾

그러나 이러한 문화정치의 한계는 이것이 사회 진화론적 문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즉, '한민족 자체의 역량부족으로 독립할 수 없으므로 실력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로 그 기초 작업으로 농업, 공업, 상업의 발전을 위해 사회의식과 관습의 개혁, 실업교육과 과학교육의 장려, 자본집적 등을 실천적인 선행 작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이 1920년대의 문화운동은 독립의지가 상실된 상태의 민족개조론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정치의 영향으로 1920년대의 조선,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朝光, 開闢, 新東亞 등 종합월간지의 발간되고 이들 매체를 중심으로 주택개량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주요 논점은 사회적 분위기 개선, 신생활의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전반적으로 기존 주택의 결점 등의 지적 및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생을 위한 채광, 환기에 대한 고려, 동선처리, 부엌이나 식당의 개선 등 전통주택의 개량으로부터 서양의 의자식 생활의 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개량론' 역시 문화정치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하였다는 일정한 한계성을 지니게 된다. 개량적 서구화와 자본주의화가 1920년대의 주택개량론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1920년대 이후의 '주택개량론'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간다. 이전의 '주택개량론'이 전문인이 아닌 일반사회지식층에 의해 주도된 반면에 이후에는 한국인 건축가를 비롯한 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제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당시 논의되던 주거 생활의 근대화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⁷⁾ 한국 주거건축의 근대화의 출발점 내

4)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pp.283-286.

5)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축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www.ocp.go.kr(문화재청)

6)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4, pp.173-192.

7) 임창복, 일제시기 한국인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5호 통권37호, 1991.10, pp.125-136.

지는 태동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2. '주택개량론'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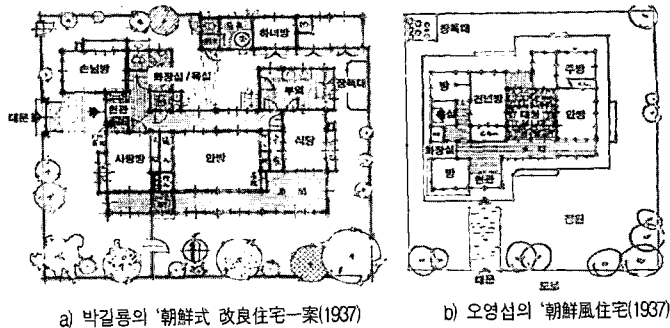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주택개량안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등장하게 된다. 논의의 대상도 전통 주거의 비효율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의 제시, 주거근대화에 대한 방법론 제시, 그 동안의 주택개량논의의 실천적 전개방향 제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인 주택개량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주택지의 선정, 각 실의 배치구성, 대지계획, 건폐율, 위생시설, 난방시설의 개선, 동선계획, 부속의 개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시에 활동하였던 한국인 건축가 김유방, 김윤기, 홍윤식, 박동진, 박길룡, 오영섭 등이 제시한 주택개량안들은 시대적 상황의 영향에 따라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본주택의 속복도를 이용한 집중형 평면을 따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속복도형 주택은 서구문화의 합리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 191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도시 중류주택의 주류를 이룬 주거 유형이다.⁸⁾ 이 밖에 당시의 제안된 주택개량안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집중식 평면으로 넓은 정원을 확보할 것,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을 구분하여 주거부분을 남쪽으로 할 것, 현관을 도입하고 각 실들 간의 연락을 복도로 할 것, 부속과 변소의 설비를 개량하고 실내화 할 것 등으로 요약된다.

반면에 한국 전통주거의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하여 살림채 내부에 모든 주거공간을 갖춘 개량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거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그림 1>의 a)⁹⁾ 또한 1937년 조선 건축회가 주최한 '조선풍 주택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한 오영섭의 계획안에서도 전통주거의 틀속에서 외래주거의 공간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그림 1>의 b)¹⁰⁾



<그림 1>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안'

8) 안성호, 일제강점기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이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론, 1997, p.27.

9) 김정아,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1991, pp.154-157.

10) 임창복,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고찰,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p.56.

이 계획안들은 1930년대 한국인 건축가들이 전통주거를 토대로 외래 주거문화의 장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3. 박길룡의 '中部地方家構法'의 고찰¹¹⁾

박길룡은 이기인과 함께 경성공업 전문학교를 나온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였다. "박길룡은 활동 초기에 전통 민가연구를 통한 '고유건축'과 일인(日人)들에 의해 들어온 '근대건축'을 발전시킨 근대건축의 선구자로서 대표적인 한국인 건축가이다."¹²⁾, "설계한 주택이 3월에 한 채씩 지어지고 있었으며, 민가 연구자로서 조선 온돌의 개량이나 주택의 개량에 대해서 대단히 조예가 깊고, 이것 등에 대하여 많은 저술이 유명하다"¹³⁾ 고 평가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주거공간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주거의 장, 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¹⁴⁾ 이를 바탕으로 전통주거를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이후에 전개하는 '주택개량론'의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의 주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⁵⁾ 첫째, 그는 초년기에 민가를 연구하였다. 둘째, 중년에는 한국의 재래식 주택개량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셋째, 말년에는 소주택과 서민주택의 지향할 바와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하며 온돌개량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현재 알려진 자료들에 의하면 박길룡(1898-1943)이 192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상당히 많은 글의 대부분이 주택개량과 관련된 것들인데,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가에 관한 연구와 둘째, 재래식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 1928년에 발표된 '中部朝鮮地方主家에 대한 一考察'이라는 글을 주목하게 된다.

이 글은 1928년 5, 6, 8월에 각각 상, 중, 하로 나뉘어 연재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경성지방가구법'에 대한 배치와 실(室) 구성의 비판·개량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1) '경성지방가구법'의 배치와 실(室) 구성

<그림 2>는 '중부지방가구법' 중 '경성과 그 부근에 분포되어 있는 가구 양식의 가장 전형적 일례'로 제시한 '경성지방가구법'이다.

내정을 부지의 중심에 두고 실들을 일렬로 병렬한 후 L자(혹은 ㄷ자)형태로 굽혀서 대지 경계 주변에 배치하는 방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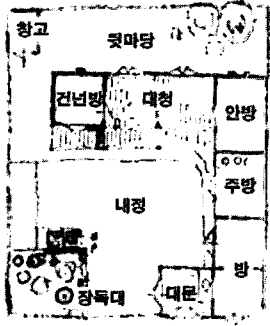
11) 본 절의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함. '김명선·이정우,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7호(통권177호), 2003. 7.

12) 우동선, 과학운동과의 관련으로 본 박길룡의 주택개량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5호(통권151호), 2001.5, pp.81-82.

13) 우동선, 위의 글, pp.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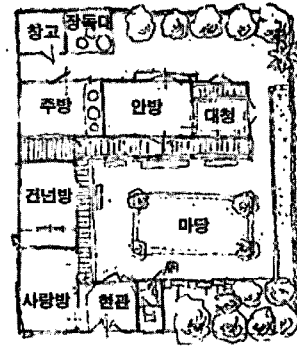
14) 김명선·이정우,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7호(통권177호), 2003.7, pp.161-162.

15) 임창복,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고찰,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pp.5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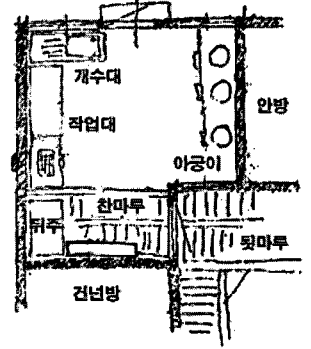


<그림 2> '경성지방가구법'
(출처 : P生, 「中部朝鮮地方主家에 대한
一考察」, 『朝鮮文朝鮮』 127호)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이런 특징을 강조하여 '중정식 배치 방식'이라고 하였으며 남측에 위치한 중정이 각 부분을 연결한다고 하였다. 대청을 남면하도록 하고 대청의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위치하며 안방의 남쪽으로 주방이 설치되며 이어서 고간, 대문간, 행랑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개량 평면도



b) 부엌 개량 평면도

<그림 3> '경성지방가구법'의 개량안

(2) '경성지방가구법'의 비판과 개량안

박길룡은 '中部朝鮮地方主家에 대한 一考察'에 대한 개량책을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랑방을 사랑방으로. 둘째, 안방의 위치변경. 셋째, 주방의 위치와 구조 개량. 넷째, 장독대의 처분. 다섯째, 내정은 적당하게 조절할 일 등이다.<그림 3> 내용의 대부분은 방의 위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원칙은 위생성과 합리성이다.

첫째로 위생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대청은 다른 실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통풍이나 채광에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였다. 건넌방은 남향하여 유리한 반면에 대개 1칸으로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하고 창호의 크기와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안방은 대청을 접하고 남면에 부엌을 접하고 있어 채광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접한 부엌공간과의 연계성도 별로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 가정 내의 위생 상태를 좌우하는 부엌공간의 비위생적인 흙바닥 구조, 개구부 수의 부족, 불완전한 구조의 아궁이 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실 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방과 대청은 위생적 측면에서 위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거주의 중심공간인 안방을 통풍과 채광이 가장 유리한 대청위치로 옮겨 실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합리적 측면에서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의 중심공간인 안방의 위치가 채광과 통풍에 불리하고 부엌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청이 남향으로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측면에서도 안방과 대청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건넌방과 주방의 위치변경과 주방의 구조개량을 제안하여 주방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며 넓게 하고 내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였다. 동시에 그 위치를 재래의 안방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건넌방의 위치를 변경하여 안방과 건넌방의 난방을 한 부엌에서 해결하여 생활의 활동능률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변소는 위생적으로 구조를 개량하여 신을 벗지 않고 통로를 통하여 실 내부에 위치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나 개량평면도에는 실내에 위치시키지 않았다. 장독대는 생활에 편리하도록 뒷마당에 위치하며 정원에는 화단을 설치하였다.

3. 1920-1930년대 서울의 전통주거

3.1. 분석틀의 설정

박길룡이 1920년대 중반 이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많은 글의 대부분이 주택개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1928년 '朝鮮文朝鮮'에 발표한 '中部朝鮮地方主家에 대한 一考察'에는 경성지역의 전통주거를 배치와 실(室) 구성으로 구분하여 위생적·합리적 측면에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개량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중부지방의 재래주거를 어떤 관점에서 주목하고 비판했으며 어떤 점을 개량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또한 한국인 건축가의 '주택개량론'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당시의 전통주거의 건립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을 토대로 하여 당시 전통주거의 근대적 변천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20-1930년대 서울지역 전통주거의 근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中部朝鮮地方主家에 대한 一考察'에 나타난 경성지역의 주택개량안을 토대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위의 글에는 경성지역의 주택을 배치와 실 구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개량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배치를 제외한 안채 영역의 실 구성을 위주로 분석틀을 세우게 된다. 또한 박길룡의 글에는 위생적, 합리적 측면의 비판이 중복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위생적 측면은 채광, 환기를 중심으로, 합리적 측면은 개실의 구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재설정하였다.<표 1>

<표 1> 분석틀의 설정

| | 위생적 측면 (채광, 환기) | 합리적 측면 (실의 구성과 관계) |
|----------|---|---|
| 대청 | a. 쓰임에 비해 채광, 통풍이 너무 좋은 것도 비판적으로 봄. | a. 대청의 쓸모없는 넓은 면적을 비판함. ¹⁶⁾ b. 대청 위치의 변경을 주장(안방의 위치로 옮길 것을 주장함) |
| 건넌방 | a. 남면하는 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b. 전면창이 협소하고 다른 면에는 창호가 부족하여 채광 효과가 부족함을 비판함. | a. 크가: 대개 1칸으로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 b. 부엌에서 안방과 건넌방의 난방을 함께 해결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것을 주장함. c. b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치변경에 관하여(건넌방을 모서리에 위치한 부엌의 전면으로 옮길 것을 주장함) |
| 안방 | a. 재래주거에서 생활의 중심공간인 안방의 위치가 채광과 통풍에 지나치게 불리함을 지적함. b. 통풍을 위한 창호와 기타 구조의 개량 여부 | a. 생활의 중심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주거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안방의 위치 변경 여부 b. a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치변경에 관하여(안방을 재래주거의 대청 위치로 옮길 것을 주장함) c. 대청을 통해서만 출입하여 불편하고 주방과 인접하였으나 아무런 연계성이 없음을 비판함. |
| 주방 & 화장실 | a. 흙바닥의 구조, 불완전한 구조의 아궁이, 개구부 수의 부족 등 비위생적 주방 상태를 비판함. b. 화장실의 구조를 위생적으로 개량할 것 | a. 주방을 합리적으로 넓게 구성할 것을 주장함(찬마루를 설치) b. 창호와 출입구를 완전하도록 개량할 것을 주장함(외부에서의 출입 가능 여부/찬마루를 설치하고 창호를 설치하여 출입) c. 주방에서 안방과 건넌방의 난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안방이 있는 곳으로 위치변경 할 것을 주장함(「I」자형 평면의 모서리에 위치하도록) d. 화장실을 내부에 위치시켜 통로로 연결한다. |

3.2. 사례 선정 및 조사

사례는 서울지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26체의 문화재 중에서 1차적으로 한국인 건축가가 활동한 1920년대 이후에 건립된 6체를 선정하였다.¹⁷⁾<표 2>

서울지역에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는 대부분 전통 한옥 기법에 의해 지어졌으며, 따라서 전통주거의 근대적 특성을 밝히고자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1920년대 이후는 한국인 건축가가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주택개량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주거공간의 주체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월계동 각심재는 경운동 민익두 가와 동일한 형태의 건물로서 1994년 현재의 위치에 이전되었다. 민익두 가의 내부는 고급 음식점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각심재에 대해서만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 1차 조사 대상 가옥 (현장 조사 및 분석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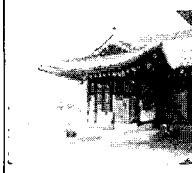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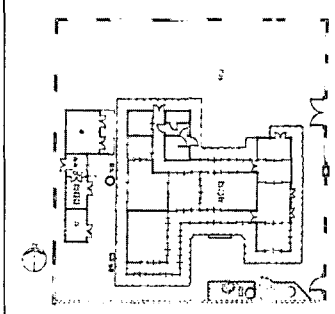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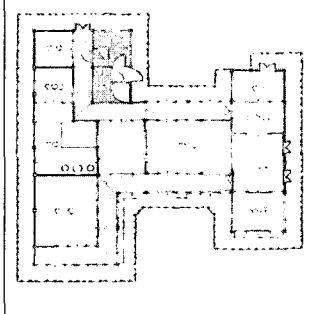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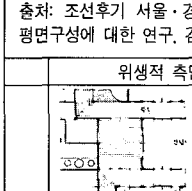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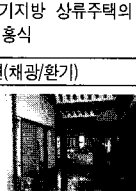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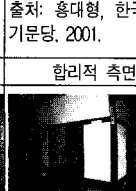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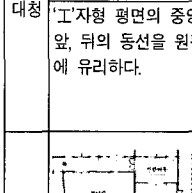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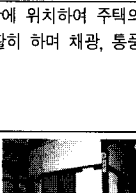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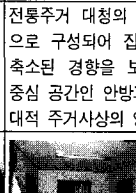
| 지정 단체 | 구분 | NO | 가옥명 | 소재지 | 실립연도 | 특징 |
|----------|----------------|-----|---------|---------------|--------|----------------|
| 시도 지정 | 서울 민속 자료 | 11호 | 이태준고택 | 성북동 성북 248 | 1933년 | 한옥, 정면4칸, 측면4칸 |
| | | 14호 | 산업은행관리가 | 종로구 가회178 | 1920년대 | 韓·洋式 절충 |
| | | 15호 | 민익두 가 | 종로구 경운66-7 | 1938년 | 정면3칸, 측면6칸 I자형 |
| | | 16호 | 월계동 각심재 | 노원구 월계766 | 1938년 | 정면3칸, 측면6칸 I자형 |
| | | 28호 | 김상협 가옥 | 종로구 혜화 15-139 | 1930년경 | 도시형한옥 |
| | | 17호 | 정구중 가 | 마포구 용강238 | 1920년 | 한옥 I자형안채 |

16) 박길룡은 “경성의 가구양식은 대청본위요 대청중심”이라고 하여 대청이 본체 가운데에 남향으로 넓게 차지하는 것 역시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17)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www.ocp.go.kr(문화재청)

해화동 김상협 가옥은 소유주의 승낙을 얻어 어렵게 사진촬영을 할 수 있었으나, 건립 당시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운 정도로 원형이 변형되어 제외하였다. 용강동 정구중 가는 현재 소유주가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내부 공개를 허락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서울시 민속자료 25호로 지정되어 있는 김진홍 가는 건립 연도가 확실치 않아 1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장 조사 및 분석은 전통주거 안채의 유형적 특징(18)을 유지하며 내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3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사례 1. 월계동 각심재(서울시 민속자료 16호, 1938년)

| | | | |
|--|--|---|---|
|  |  | 한국인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옥은 재료의 사용, 구조 형식, 지붕 형태 등은 전통주거의 범주에 들지만, 평면의 구성내용은 전통주거와 다르다. 서울·경기 지방 전통주거의 「I」자형 평면이 확장되어 「I」자형의 평면을 이루며 전통주거에서 채용되지 않던 응접실, 현관, 긴 복도, 욕실 등이 있다. 또한 부엌의 위치가 전통적인 평면과 다르며, 변소를 실 내부에 두고 복도로 연결하고 있다. 이 가옥은 전통주거가 개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박길룡의 '주택개량론'이 실제 주거공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 |
| | |  |  |
| 출처: 조선후기 서울·경기지방 상류주택의 평면구성에 대한 연구, 김홍식 | | 출처: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울편, 기문당, 2001. | |
| | 위생적 측면(채광/환기) | 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 | |
| 대청 |  |  |  |
| | 「I」자형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택의 앞, 뒤의 동선을 원활히 하며 채광, 통풍에 유리하다. | 전통주거 대청의 위치와 동일하지만, 1칸으로 구성되어 집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경향을 보인다. ¹⁹⁾ 이것은 주거의 중심 공간인 안방과 건넌방을 중시하는 근대적 주거사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 |
| 건넌방 |  |  |  |
| | 주택의 중앙에 남면(南面)하여 위치하며 사방에 창호를 설치하여 채광, 통풍, 환기에 유리하다. 전통주거의 건넌방에 창호의 숫자가 부족한 것과 대조된다. | 규모가 2칸 정도로 매우 크며, 건물 내의 위치는 전통주거와 동일하다. 동면의 응접실과 연계되어 상황에 따라 방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엌에서 출입하는 지하실에는 각 방의 아궁이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을 위한 동선이 단축되고 노동력이 절감된다. | |

18) 조성기, 위의 글, p.89.

| | | | |
|--|--|--|--|
| | | | |
| <p>안방</p> <p>생활의 중심공간인 안방을 가옥의 전면 에 남향으로 위치시켜 채광, 환기에 가 장 유리한 곳에 배치하였다.</p> | <p>생활의 중심 공간인 안방을 주거에 가장 유리한 전면에 위치시켰다. 즉, 전통적인 'ㄱ'자형 주택에서 주방과 안방의 위치를 맞바꿔 배치하였다. 안방 주위의 복도를 통해 출입하도록 기능 성을 높였다.</p> | | |
| <p>주방 & 화장실</p> | | | |
| <p>현재에는 주방과 화장실의 위생적 구조 를 확인할 수 없다.</p> | | | |

사례 2. 성북동 이태준 고택(서울시 민속자료 11호, 1933년)

| | | | |
|--|--|--|--|
| | <p>이 가옥은 별장형 주택의 작은 집이면서도 모든 것이 알차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전체적으로 서울·경기지방의 전형적인 'ㄱ'자형 평면을 바탕으로, 그 뒤쪽으로 실이 확장되어 'I'자형 의 평면구성이다. 특히, 사랑채 없이 사랑방의 기능을 가진 실(室)인 누마루를 안 체에 집약시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평면을 해결한 점, 안채에 필요한 실을 뒤로 확장시켜 'I'자형에 가까운 평면으로 구성 한 점, 부엌을 안방 뒤로 위치시킨 점, 화장실을 안채에 부속 시킨 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말기 전통주거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확장, 변형된 예를 보여준다.</p> | | |
| | | | |
| <p>출처: 조선후기 서울·경기지방 상류주택의 평면구성에 대한 연구, 김홍식</p> | <p>출처: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p> | | |
| <p>위생적 측면(채광/환기)</p> | <p>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p> | | |
| <p>대청</p> | <p>이 주택은 별장형 주택의 특성상 한 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대 청은 전통 주거에서의 위치와 동일하지만, 안채의 뒤편으로 확장된 영역을 복도로 연결하고 각 동선을 이어주는 주거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툇마루와 대청 사이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의 기능성을 높여 전통주거에서의 대청의 기능 에서 좀 더 확장된 근대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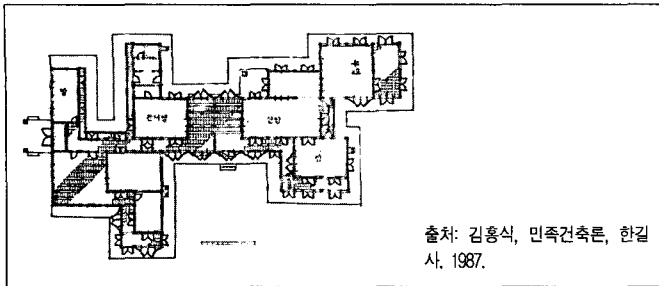
19) 중부지방 대청의 규모는 대개 1칸, 2칸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청의 규모
가 주문화의 규범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7권3호, 1991.6, p.89.

| | | | |
|---|--|--|--|
| | | | |
| <p>건방</p> <p>방의 3면에 창호가 있어 환기와 기능성 을 높였다. 반면에 외부에 접하는 면의 창호는 작게 설치하여 보온성을 높인다. 난방을 위한 아궁이는 전면 툇마루 하부 에 위치한다.</p> | <p>1칸으로 구성되어 좁지만, 방에 북면(北面) 하여 뒷방을 위치시켜 확장시켰다. 아궁이는 툇마루 밑에 위치한다. 대청과 마찬가지로 전통주거의 평면에서의 건방의 위치와 동일하다.</p> | | |
| <p>안방</p> | | | |
| <p>안방은 가옥의 전면에 남향으로 위치하 는데, 전면으로 누마루를 달아내었다. 건방과 마찬가지로 동측에 작은 창을 내어 환기성을 높이고, 누마루의 외부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외기(外氣)를 차단한다. 대청의 유리문 안쪽에 출입구를 설치하 여 보온성을 높였다.</p> | | | |
| <p>주방 & 화장실</p> | | | |
| <p>현재에는 주방과 화장실의 위생적 구조 를 확인할 수 없다.</p> | | | |

사례 3. 가회동 산업은행관리기(서울시 민속자료 14호, 1920년대)

| | |
|---|--|
| | <p>대지는 동서로 길게 놓여 있으며,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가 한 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채 북쪽과 안채 전면에서 동서 방 향으로 길게 난 복도로 이어져 있다. 동편의 정원과 마당은 현재 유실되었다.</p> |
| | <p>1920년대에 지어진 이 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전통주택 형식을 바탕으로 서양과 일본식 생활의 영향을 받은 평면 구성을 한 집, 사랑채와 안채를 복도로 연결하여 한 체로 처리한 점, 포 치와 현관을 설치한 점, 서양식의 '용(用)'자형 유리창문을 만든 점 등에서 당시 부유층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된다.</p> |
| | |
| <p>출처: 홍대형, 한국의 건축사 학회, 서울편, 기문당, 2001.</p> | |

20) 박형진·류호창,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
구 -조선 후기 경기지역의 중상류 주거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론,
2003, p.86.



출처: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 | 위생적 측면(채광/환기) | 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 |
|----------|--|--|
| 대청 | <p>2칸 크기로 사랑채 영역과 안채 영역을 연결하는 동선의 중심에 위치한다. 앞, 뒤로 설치한 유리문을 통해 내부화하여 기밀성을 높였다.</p> | <p>전통주거와 마찬가지로 주거의 중심공간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집의 규모와 사랑대청, 주변의 안방, 건넌방의 규모에 비하여 크기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등의 근대적 경향이 보인다.</p> |
| 건넌방 | <p>2칸으로 크게 설치하였으며, 내외부로 통하는 창호를 사방에 설치하였다. 남면하고 있지만, 실의 확장, 분화라는 근대적 경향에 의한 사랑채 영역에 의해 다소 채광에 방해를 받고 있다. 실의 중요도에 따라 배치한 결과라 볼 수 있다.</p> | <p>2칸으로 크게 설치하였으며, 내외부로 통하는 창호를 사방에 설치하였다. 현재 화장실로 쓰이는 복층의 확장된 영역은 과거에도 화장실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건넌방을 통해 출입할 수도 있고 외부의 쪽마루를 통해서도 출입가능하다.</p> |
| 안방 | <p>안방 앞의 확장된 방은 안방의 채광에 불리함이 없도록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시킨다. 영역을 확장함에 있어서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확장된 영역의 전면에는 복도를 달아내고 유리문을 달아 기밀성을 높였다.</p> | <p>부엌을 안채 영역의 북쪽으로 후퇴시키고 안방 영역을 남쪽으로 배치한 점이 전통주거의 배치와 크게 다르다. 3칸으로 구성되며 기능의 요구에 따라 남북으로 확장된다. 각 방의 출입은 주변의 복도(뒷마루)를 통해 가능하다. 안방 동측의 뒷마루를 통해 안방과 그 앞의 방에서 주방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안방 북측의 전실을 통해 주방으로 출입이 가능하다.</p> |
| 주방 & 화장실 | <p>아래 그림과 같이 부엌공간은 현재 식당으로 사용되며 뒷마루 공간이 주방으로 사용된다. 건넌방 후면은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p> | <p>주방을 안방의 뒤에 위치시키면서도 채광과 환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즉 안방과 주방 사이에 전실을 설치하여 주방을 동측으로 치우치게 배치하였고 앞과 뒤에 실을 두지 않았다. 주방 동측으로 2칸 마루를 설치하고 북측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해 기능성을 높였다. 화장실은 건넌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데, 처마 밑에 설치한 쪽마루를 통해서도 출입할 수 있다.</p> |

<표 3> 종합분석표

| 가옥 | 분석 | 대청 | | 건넌방 | |
|--------------|----|---------------------------------------|---|---|--|
| | | 위생적 측면(채광/환기) | 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 | 위생적 측면(채광/환기) | 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 |
| 월계동 각심재 | | -채광, 환기에 유리함. -외부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높임 | -1칸으로 구성(주거의 전체 규모에 비해 상당히 축소됨) -물리적, 상징적으로 중심적 위치 | -남면하여 창호가 크고 사방에 설치되었지만, 보온을 위해 주변 뒷마루에 유리문을 달았다. 채광, 환기에 유리함 | -2칸이며, 응접실과 연계하여 매우 크게 설정 -지하실을 통해 난방함 -전통주거와 위치는 같으나,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 성북동 이태준 고택 | | -채광, 환기에 유리함. -외부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높임 | -2칸으로 구성(전체 주거의 중심적 기능, 별장형 주거의 특징으로 대청의 공간이 중심됨) -물리적, 상징적으로 중심적 위치 | -남면하며, 사면에 창호를 설치했으나, 외기(外氣)에 직접 접하는 창호의 개구부를 작게 하여 보온성을 높임 | -1칸이며, 적절한 규모로 구성 -뒷마루 하부에서 난방함 -전통주거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후면으로 기능 확대됨 |
| 가회동 산업은행관 리가 | | -채광, 환기에 유리함. -외부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높임 | -2칸으로 구성(주변의 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구성) -물리적, 상징적으로 중심적 위치(안채, 사랑채를 연결하는 주거의 중심적 역할) | -남면하며, 사면에 창호를 하여 채광, 환기에 유리함 | -2칸으로 크게 구성됨 -각 방에서 난방함 -전통주거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후면에 화장실, 욕실을 설치함 |
| 근대적 특성 | | -채광, 환기에 유리하며 외부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 -대청 본위의 전통 주거에 비해 그 역할이 축소되며 물리적인 크기 역시 축소됨. -전통 주거에서의 대청의 상징적 역할을 유지하며, 위치도 불변함. | -남면하며 사방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채광, 환기에 유리함. -외기(外氣)와 접하는 면은 보온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조절함. | -전통주거의 건넌방보다 크게 구성되어 기능에 따라 조절함. -전통적 난방방식을 벗어나지 못함. -위치는 전통주거의 건넌방과 동일함 |

| 가옥 | 분석 | 안방 | | 주방 & 화장실 | |
|--------------|----|--|---|---|--|
| | | 위생적 측면(채광/환기) | 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 | 위생적 측면(채광/환기) | 합리적 측면(실의 구성과 관계) |
| 월계동 각심재 | | -채광, 환기에 가장 유리한 주택의 전면에 위치함. -복도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보온성을 높임 | -생활의 중심공간인 안방을 주거에 가장 유리한 전면에 배치함. -복도를 통해 출입하며, 대청을 통해 주방과 연계됨 | -주방을 작업공간, 찬마루, 부엌마루, 부엌방 등으로 분화하여 위생적으로 개량함. -주방의 개구부를 여러 곳에 설치함 | -주방을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화하여 설치함. -주방의 내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함. -주방/화장실을 주택의 후면에 설치함. -내부에서 복도로 연결함 |
| 성북동 이태준 고택 | | -채광, 환기에 유리한 주택의 전면에 위치함. -전면의 누마루와 대청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보온성을 높임 | -안방과 누마루(사랑방 역할)를 연계하여 주택의 전면에 배치함. -주방의 개구부를 통하여 식사공간을 분리하고 누마루를 설치하여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짐 | -이전의 개량된 주방과 화장실을 확인할 수 없음. -주방의 개구부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채광, 환기성을 높임 | -주방을 찬마루, 부엌마루, 작업 공간, 수납 공간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함. -외부에서 출입가능하며 찬마루를 통해 출입함. -주방/화장실을 주택의 후면에 설치함. -내부에서 복도로 연결함 |
| 가회동 산업은행관 리가 | | -주방의 전면에 위치한 안방영역을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함. -확장된 안방 영역은 복도를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부엌의 내부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님 | -확장된 안방 영역을 주택의 채광, 환기에 유리한 전면에 배치함. -확정된 안방 영역은 복도를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부엌의 내부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님 | -이전의 개량된 주방과 화장실을 확인할 수 없음.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주방의 앞, 뒤에 실을 배치하지 않음 | -주방 내부의 기능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전실과 측면의 뒷마루 등으로 확장, 분화함. -내, 외부의 뒷마루와 전실을 통해 출입 가능함. -주방, 화장실을 주택의 후면에 설치하였으나 주방의 경우에는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함. -내부에서 복도로 연결함 |
| 근대적 특성 | | -남면하여 채광, 환기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구성함. -복도와 유리문을 설치하여 쾌적함과 보온성을 고려함 | -기능의 요구에 따라 분화, 확장한 모습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평면의 합리적 구성으로 보아 확장성과 주방의 구조적인 개량화도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이전의 개량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평면의 합리적 구성으로 보아 확장성과 주방의 구조적인 개량화도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주방은 작업 공간, 전실, 찬마루, 수납공간, 부엌마루 등으로 분화됨. -내, 외부에서 출입가능함. -안방과 위치를 바꿔 후면에 위치시키되 채광과 환기를 고려함. -내부에서 복도로 연결함 |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건축가 박길룡이 1928년에 발표한 「中部朝鮮地方主家에 대한 一考察」에 나타난 '중부지방가구법'에 대한 '주택개량론'을 토대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여 1920~1930년대 서울지역 전통주거의 근대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안채의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대청, 건넌방, 안방, 주방, 화장실을 위생적·합리적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공간의 근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주거의 대청이 쓰임에 비해 비합리적이라는 박길룡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청의 중심적, 상징적인 위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당시의 주거는 뒷마루가 복도화하여 통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많은데, 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서 확장된 주거의 앞, 뒤를 이어주는 내부동선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다만 확장된 집의 규모와 주변의 방과 비교하여 작은 규모로 계획되어 기능이 축소된 듯한 인상을 준다. 전체적으로 채광, 환기에 유리한 위치를 설정하며 분합문 위치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보온성과 거주성을 높게 된다.

둘째, 건넌방은 전통주거와 마찬가지로 남향하며 사방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채광, 환기를 고려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는 작게 내고 뒷마루와 함께 외부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보온효과를 고려한다.

대개 2칸 이상의 규모로 크게 계획되며 기능에 따라 확장·분화하는 근대적 특성을 보인다. 박길룡은 '경성지방가구법'의 개량안에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부엌의 앞과 옆에 건넌방과 안방을 위치시켜 각 방을 함께 난방할 것을 주장한다.<그림 3> 그러나 조사 대상 가옥의 건넌방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나뉘어 위치하는 관계로 재래의 난방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월계동 각심재의 경우 지하실을 통하여 각 방의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력을 절감한다.

셋째, 안방은 주거의 중심공간으로서 채광, 환기에 가장 유리한 전면에 위치한다. 남면하여 외기와 맞닿는 면은 뒷마루를 설치하고 유리문을 설치하여 쾌적함과 보온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기능의 요구에 따라 확장, 분화시켜 부엌과 위치를 바꿈으로서 합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대청을 통해서만 출입하던 안방은 그 출입을 주변의 뒷마루를 통하게 하여 여러 곳에서 편리하게 하도록 한다. 또한 복도를 통해 주방과의 동선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연계성을 높인다.

넷째, 주방과 화장실의 흙바닥 구조, 불완전한 아궁이, 비위생적 구조 등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평면상에 나타난 기능분화로 볼 때, 위생상으로 많은 개선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방은 작업공간, 전실, 찬마루, 수납공간, 부엌마루 등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 적절한 규모로 계획된다. 반드시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를 두었으며, 내부 복도에 면하여 찬마루를 계획하고 그곳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방과 자리바꿈하여 주택에서 불리한 곳에 위치하나, 합리적 계획을 통해 최대한 환기, 채광에 유리하도록 위치를 조절하기도 한다. 화장실은 대부분 주거 내부에 위치하며 복도로 연결한다.

참고문헌

1.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기문당, 1994
2.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3. 윤정중·추상록, 공간사, 서울, 1967.4
4.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4
5.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3
6.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울편, 기문당, 2001
7. 박형진·류호창,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조선 후기 경기지역의 중상류 주거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론, 2003
8. 김명선·심우갑, 1920년대 초 『개벽』誌에 등장하는 주택개량론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0호(통권168호), 2002.10
9. 우동선, 과학운동과의 관련으로 본 박길룡의 주택개량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5호(통권151호), 2001.5
10. 송주현,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주택건조물 현황,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11. 김명선·이정우, '中部地方家構法'에 대한 박길룡의 평가와 개량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7호(통권177호), 2003.7
12. 안성호, 일제강점기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이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론, 1997
13. 임창복,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고찰, 대한건축학회지 33권 2호 통권 147호, 1989.3
14. 임창복, 일제시기 한국인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5호 통권37호, 1991.10
15. 조성기, 한국 중부형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3호, 1991.6
16. 김정아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론, 1991
17. www.ocp.go.kr(문화재청)

<접수 : 2004. 10. 30>